



·삼수의 원리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 (36화)

감람산 일명 노구산(露求山) 바위를 깨면 그 쪼개진 면에 감람나무 잎사귀가 새겨져 있어

8절: 일곱째 천사가 완성자로 거듭나는 과정

- 1) 신앙공동체마을과 감람산 정상의 오만제단
- 2)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는 신앙생활
- 3) 마귀를 기만하는 하나님의 쇼
- 4) 하늘의 사람을 제거하려고 함
- 5)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분은 하나님
- 6) 신비로운 초능력을 행하다
- 7) 마귀 취급받으면서 자존심을 죽이는 연단

1) 신앙공동체마을과 감람산 정상의 오만제단

(지난호에 이어서)

그 옛날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이 동쪽에 위치한 신광야에서 성막중심의 40년 광야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감람산의 동쪽에 신앙공동체 중심의 30년 소사광야생활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배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에서 이루어졌던 예정된 역사였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 소사 신앙공동체마을이 건설된 이곳은 자유당 시절 농림부장관을 지낸 박 모씨의 기증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습니다.

영모님이 이곳에 신앙공동체마을을 건설하려고 주인을 찾아 만났는데 그 땅주인이 그 부지(敷地)를 영모님께 회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유인즉 그분의 선조 때부터 이어져 오던 유언이 있었는데, "이곳은 하늘의 뜻을 이룰 성인군자가 사용할 땅이니, 이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거든 하늘의 사람으로 알고 거저 드러라."는 것이었습니다.

소사 신앙공동체마을을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건설대원을 모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다섯째 천사는 전도관 교인들에게 말씀하기를, "울타리에 들어가면 마시는 물도 생수고, 목욕하는 물도 생수고, 밥을 짓는 쌀도

축복받은 쌀로 하고, 또 그곳은 마시는 공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만한 공기이기 때문에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려야 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곳이다. 그러니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이 14만4천의 왕의 반열에 제일 먼저 참여하게 된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계시록 7장, 14장 참조).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전도관 교인들은 울타리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겠다는 마음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와 같이 울타리에 들어가고픈 마음이 한껏 고조된 시점에 건설대원을 뽑는다고 하니, 건설대원이 되면 제일 먼저 울타리에 들어가는 것이 되고, 또 왕의 반열에 제일 먼저 참여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너도 나도 많은 사람들이 건설대원에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지원자 중에는 처녀 총각이 대부분이었고, 처녀 총각 중에서도 처녀들이 월등하게 많았습니다. 또 건설대원 중에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고학력자도 많았습니다. 다들 신앙을 위해서, 영광된 구원을 위해서 동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섯째 천사인 영모님은 이들 건설대원들을 각 별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안찰도 제일 많이 해주시고, 생수도 제일 강하게 해주시고, 무엇이든지 제일 우선으로 이들을 대해주시면서 너희들이 잘 이기면 왕의 반열에 틀림없이 참여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신앙공동체마을의 건설현장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가옥은 아름다운 붉은 벽돌로 짓고, 지붕은 붉은색 파란색 노란색 등 각양각색의 색깔로 칠을 하니 다 완성되지도 않은 모습인데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었습니다. 다 완공된 다음에는 영모님의 말씀 한 마디로 가옥 주위에 정원을 만들어주고 아름다운 꽃을 심어 전 주택지가 아름다운 꽃동산으로 변했습니다. 또 이곳에 공장도 지었는데, 메



소사 신앙촌의 초창기 모습(왼쪽 상단에 노구산 정상이 보인다)

리야스공장, 제과공장, 간장공장 등 신앙공동체마을에서 자급자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진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1958년부터 전국에서 뿔뿔히 교인들이 소사 신앙공동체마을에 입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시야 65장

22절: 저희가 가옥을 건축하고 거기 거하며 (중략) 저희가 건축한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하고 저희가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할 것이다.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23절: 저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년에 걸리지 아니하니, 저희는 여호와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이하 생략)

영모님이 "왕초 뱀을 내가 죽였다"는 말 한 마디에 감람산에 우글거리는 뱀들이 전멸되어

신앙공동체마을을 조성하고 더불어 감람산(일명 노구산) 정상에 오만제단의 만들어졌고 아름다운 꽃을 심어 전 주택지가 아름다운 꽃동산으로 변했습니다. 또 이곳에 공장도 지었는데, 메

버려진 산이었습니다. 제단 터를 닦기 위해 제일 먼저 바위를 깨는 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58년 한여름에 영모님은 "내가 우두머리가 되는 왕초 뱀을 잡아 죽여 버렸으니 이제 뱀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건설대원들은 노구산(露求山) 산등성이에 있는 돌을 깨서 운반하는 일로 분주한 가운데, 매일 같이 여기저기서 뱀이 출몰하여 소란을 피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영모님이 뱀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한 이후로 신기하게도 뱀이 일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후로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 오목하게 구멍진 곳에 수많은 뱀들이 뒤엉켜 죽은 채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무더기로 죽어 있는 뱀을 발견하였는데, 아마 그 뱀을 트럭으로 실었으면 서너 대의 트럭분이 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소사 신앙촌의 감람산에 뱀이 많았다는 것은 성경 창세기서 에덴동산에 살던 해와에게 뱀이 나타나 선악과로 유혹하는 장면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또한 소사는 복숭아 과수원이 많아 복사골로 유명한데 소사 신앙촌

에 입주한 교인들은 씨가 하나뿐인 복숭아나 자두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숭아가 먹음직해서 한 입 베어 먹게 되면 그 즉시 입 안이 부르터서 혼나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숭아는 뱀과 사촌지간이어서 음란한 물질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관에서는 복숭아이외에 돼지고기도 못 먹게 하였는데, 교인들 중에 짜장면에 돼지고기가 들은 줄 모르고 먹고는 복통을 일으키고 설사하며 곤욕을 치렀던 것입니다.

전도관 시대는 미완성의 영모님이 주관하던 때였기에 복숭아와 돼지고기를 먹지 못했지만, 이후 일곱째 천사가 완성자로 출현하여 역사하는 승리제단 식구들은 복숭아나 돼지고기를 먹어도 아무런 탈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곱째 천사가 되는 아담 이긴자가 복숭아 속에 있는 음란한 물질이 되는 뱀의 독기를 없애버리고 복숭아 속에 함유되어 있는 뇌(腦)에 좋은 성분을 섭취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세주 아담 이긴자께서 승리제단 신자들에게 돼지고기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 속에 있는 독소물질을 제거하는 능력을 주셨으므로 아무리 돼지고기를 많이 먹어도 배가 아프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구세주로 오신 아담 이긴자 조희성님은 치매 예방에 양배추가 좋으니 치매현상의 기미가 보이기 전에 사오십 대부터 양배추를 부지런히 섭취할 것을 권유하시고 또 혈압이 높은 사람은 토마토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양파를 비릇하여 마늘도 좋은 식품이라고 하시면서 특히 마늘이 항암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마늘은 또한 모든 병이 일어나지 않게 기력을 강화시켜 준다고 하시면서 너무 많이 먹어도 안되니까 끼니마다 한 개 정도 먹으면 좋다고 권유하시는 것입니다.

양심에 맡긴 무인판매소를 운영해도 거래금액의 오차가 생기지 않아

한편 오만제단은 영모님께서 1차 옥고를 치를 때에 완공되었지만 영모님의 석방 이후에도 바위를 깨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건설대원이 동원되어 해머로 바위를 깨는 작업이 한창 진행되던 무렵에, 육군 중위였던 일곱째 천사 조희성님은 장교후가를 받고 소사로 부리나케 달려와서 건설대원과 함께 해머로 바위를 깨는 일에 몰두하였습니다. 그 일곱째 천사가 해머로 바위를 깨면 그 깨진 면에 감람나무 잎사귀가 뚜렷하게 새겨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겨진 감람나무 잎사귀를 제일 먼저 발견한 일곱째 천사는 영모님께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감람산(일명 소사 노구산)에 감람하는 구세주 되신 일곱째 천사를 계시할 목적으로 일어난 예정된 역사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영모님은 신앙공동체마을에 무인판매소를 설치하게 하였는데, 그 판매소는 판매 대신에 '주인 없는 상점'이라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정가가 매겨진 각종물건을 진열해 놓았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필요한 물건을 사려면, 상점 문설주에 적힌 '돈은 상자에 놓고 물건을 가져가시오' 라는 문구를 보고 정가대로 돈을 돈통에 넣고 사갈 수 있게끔 양심에 맡겼습니다. 많은 물건이 팔렸지만 거래금액은 한 푼의 차이도 나지 않고 맞았습니다. 그 당시 신앙공동체마을에 처음 입주한 사람들은 새마을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백발이 이루어져서 재림주님을 맞이하여 왕의 반열에 들어야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박한수

21일 만에 성도(成道)하기 <21일째>

영생의 도는 딱 21일만 제대로 하면 완성이 된다. 더도 덜도 없이 오직 21일이다. 21일만 부처님을 사모하고 놓치지 않으면 부처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21일만에 성도하기'라는 글을 쓰기로 하였다. 필자는 21일간 어떻게 하여야 될 것인지 자세하게 알려줄 것이다. 그대로 따라만 하면 누구나 부처를 이룰 수 있다. 많은 관심을 바란다. - 편집자 주

하나님의 역사가 지연되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당하게 되어 있다는 구세주의 말씀을 잘 새겨야 한다. 하나님의 역사는 6천년 이래로 처음으로 치열하고도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는 현재상황이다. 하나님의 자식이려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6천 년간 마귀와 더불어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을 도와야 한다.

죽은 사람들의 영들이 살아 있는 사람 속에 있다

죽은 조상의 영들이 현재 살아 있는 자식들 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승리제단에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으로 거듭나기를, 우리들 뜻속에 있는 조상의 영들이 학습고대하고 있다고 한다. 구세주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의 영이 자식 속에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한다.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에 그 자식이 어머니 뱃속에서 열 달 만에 사람으로 구성되어 출산하게 된다. 임태되는 과정에서 그 부모님의 피가 함께해서 그 자식이 만들어지고, 그 부모님의 피로 만들어지는 고로 부모님의 영이 자식

속에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가 곧 생명이요 생명이 사람속의 양심의 영(또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오늘날 구세주께서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하셨다. 심지어 성경적으로도 창세기서와 레위기서 그리고 요한복음의 구절 등을 인용하여 "피가 곧 영"이라는 것을 입증하신 바 있다.

위와 같은 이치를 그대로 적용하면,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부모님이 살고 있는 것이다. 실령 부모님이 돌아가셨다손 치더라도 부모의 영이 자식 속에 살고 있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 영이 손자 속에 살고 있다. 다시 말해서 무론대소(無論大小)하고 죽은 사람들의 영들이 살아 있는 사람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살아 있는 사람이 전부 영생을 얻으면 조상 대대로 영이 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따라서 승리제단에 나오는 우리들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바람에, 우리들 속에 있는 죽은 조상들의 영들이 명달아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승리제단에 나오는 것은 효자(孝子) 중에 효자 노릇하는 것이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죽으면 집 안에서 놔두지 않고 관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산에 갖다가 묻어버리는 것이다. 그것만도 얼마나 비참한가! 그래



탐골공원에서 전도하는 모습

서 그러한 비참한 운명에 처한 사람들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세주께서 죽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주면서 죽지 않는 명약(名藥인) 감로이슬성신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가? 항상 감사해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것이다.

구세주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규범 속에서, 규칙 속에서 생활해야

구세주는 무조건 주고 무조건 사랑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준다고 해서 그것을 마음 놓고 받아들인다면 그런 사람을 세상에 서도 안체라고 하는 것이다. 양체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끊이지 않고 하나님한테 감사를 기울여야 되고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구세주의 평생을 한번 살펴보아도 구세주 자신은 평생을 자유롭게 못 살았음을 알 수 있다. 항상 규율과 규범 속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유분방한 생활을 한 흔적이 없다. 스무 살 때에는 포로 생활을 3년간 했으며 이어서 스물세 살부터는 11년간 군대 장교생활을 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생활을 시켰느냐 하면, 구세주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분방

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늘의 사람이 될 수 없으며, 반대로 규칙적인 생활 즉 항상 어떠한 규범 속에서 속박된 생활을 해야 그래야 이루어진다.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죄를 뭉청뭉청 짓기 때문에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승리제단에 나와서 구세주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규범 속에서, 규칙 속에서 생활해야 된다.

"예배가 끝났다고 해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가지 말고 예배만 끝나면 무섭게 전도하러 다니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구원 얻는 방법이에요. 왜 이 사람이 하루에 백 명씩 전도하라고 그랬는줄 아세요? 백 명 전도하면 하루가 다 가요. 백 명 전도하면 그러면 사사로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귀 종자 사람과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마귀 종자 사람은 자유분방한 사람이예요.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고 싶은 것을 못해요. 항상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살려고 이제 틈만 나면 전도를 하기가 바빠요."

2001년 11월 2일 말씀 중에서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하는 구세주의 능력을 몸소 체험하는 분들이 많아

우리 승리제단에서는 한반도로 불

어오는 태풍을 막고 여름장마를 못지게 하는 동시에 계속해서 풍년통계 하는 등, 이른바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하는 구세주의 능력을 몸소 체험하는 분들이 많다.

해마다 6월 이후에는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다. 새벽에 자전거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청년은 비가 오는 날이면 힘이 들고 평소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 파김치가 되기가 일쑤였다. 그런데 밤새도록 비가 끊임없이 많이 내리다가 여청년이 자전거를 몰고 새벽에 나서는 시간부터 비가 딱 멈추고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는 순간 비가 또 다시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여름 내내 못 한 번 쯤지 않고 새벽일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구세주께서 더 놀라운 능력을 여러 번 보여주셨는데, 새벽에 멈춰던 비가 일을 하던 도중에 갑자기 역수같이 내린 적도 있었지만 여청년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길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몸과 마음과 생명 전체를 바쳐 하나님의 역사에 협조하는 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구세주의 전지전능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구세주의 분신(分身) 역사를 자주 목격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더욱더 영생의 확신으로 다져지고 기쁨의 신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가 보아도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모되는 것이다.*

박태선 기자